



각시



따따부따



하루방



천하대장군 · 지하여장군



◀ 목공예가 김종홍씨가 인간세상의 백팔번뇌를 녹여 어지러운 세상일이 잘 풀리길 기원하며 108점의 팔도 장승을 깎고 있다.

## 장승

# 한민족 희로애락 '생생'

### 김종홍씨 백팔번뇌 녹이는 '108장승' 조성 안동국제탈춤축제 10월 1~5일 전시

특 볼거진 동방을 눈에 주먹 같은 코, 삐져나온 씨릿니, 결코 예쁘다거나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는 장승의 얼굴.

그러나 그 얼굴은 때로 부처님의 은화하고 인자한 얼굴로, 또는 문무석인(文武石人)의 엄엄하고도 장엄은 모습으로도 다가온다. 보는 사람의 시각이나 마음에 따라 신하게도 보이고 무섭게도 보이지만 사골노인의 추퐁진 얼굴같이 친근하기 그지없다. 백제나 신라의 기왓장에 새겨진 도깨비 얼굴에서처럼 익살끼스익스 웃음과도 땀이 흥하는 우리만의 웃음과 우리민족만의 표정이 숨어있다.

장승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며 때로는 무서운 병을 옮겨다 주는 손님마마가 어린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도 하고, 때로는 할머니나 아저씨들이 손바닥을 하며 소원성취를 비는 기도처가 되면서 우리의 삶 가장 가까에서 소박한 임무를 다해왔다. 20여년 경력의 목공예가로 하회탈을 만들다가 장승에 심취,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 입구에서 장승만들기에 전념하고 있는 김종홍(45)씨, 그는 오늘도 우리민족의 표정찾기에 신명을 바치고 있다.

### 백수·당승등 팔도명칭 다양 속담·수수께끼 인용 '친숙'

김씨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안동 하회마을에서 열리는 '97 안동 국제탈춤제' 기간동안 팔도 장승을 선보일 장승전시회를 연다. 총 1백8점의 장승을 야외공원에 전시하게 되는 이번 행사에는 내외국인 민속관계자와 관광객들에게 하회탈과 함께 또 하나의 '우리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씨는 인간세상 백팔번뇌를 녹여려는 열의로 1백8점의 장승작품을 발원했다고 한다.

"팔도 장승들이 한 곳에 웅기풍기 모여 잔치판을 벌이듯 정치·경제할 것 없이 어지럽기만 한 세상이 잘 풀리고 한마당으로 어우러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외국인에게는 정말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릴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최대한 많은 표정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민중들의 가슴속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온 장승은 이렇듯 다양하다. '장승'이란 호칭은 대개 서을 부근의 사람들이 부른 말이다. 이는 오래 살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장생불사(長生不死)의 의

미로 도교에서 빌어 온 이름이라 한다. 또 정리나 경성도에서는 '백수' '백시' '당산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충청도에서는 '수살막이' '수살막',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당승' '돌이목', 제주도에서는 '돌하루방' '우석목(偶石木)' '거오기' 등으로 부른다.

장승이 민중들의 삶에서 얼마나 흥취를 얻어 어울렸는지는 속담이나 수수께끼, 지명 등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멍청하게 서 있는 사람을 일컬어 '백수같이 멍하니 서 있다' 하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 때 '장승 입에다 말가루 발라놓고 국수값 내라고 한다'고 말한다. '개기 장승 무서운 줄을 알면 오줌 놀개' 등의 속담도 있다. '밤낮을 눈뜨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 '입이 크 되 말 못하는 것이 무엇이나' 등의 수수께끼도 누구나 한번쯤 들어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판소리(변강쇠 타령)에는 변강쇠가 장승으로 군불을 지피자 그 벌로 1만가지가 넘는 병을 얻는 대목이 나오기도 한다.

언제부터 장승이 생겼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대략 2천여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게 길가를 지키며 변변히 이어오던 장승은 물질문명의 유입과 함께 의술의 발달, 외래 종교의 도입 등으로 미신과 구습의 하나로 멸시되며 우리의 삶에서 잊혀가고 있다.

하지만 오랜 역사를 우리의 조상과 함께 살아온 장승의 숨결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리 만무하다. 불공을 드리기 위해 찾아가는 사람의 경제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장승의 모습이나, 또는 우연히 지나치던 국도변에서 만난 돌장승의 얼굴이 곧 우리의 모습이란 사실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는 그 옛날 우리의 조상님들의 서민과는 사뭇 다르지만 정치·경제 등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들의 해결을 기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장승을 통해 잊혀졌던 우리의 뜻과 모습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끊어질 않고 있는 것도 다행스런 점이다.

다양한 유형의 장승들이 보여주는 공존된 미적(美的) 이상과 본질은 역시 '생명의 힘' 또는 원시적 '진정성'이다. 바로 이 점이 한때 버려지듯 잊혀졌던 장승을 다시 우리의 삶속으로 끌어들이게 하고 있다. 다만 장승의 모습을 20세기의 것으로 변형시켜 재창조할 때 비로소 장승문화를 올바르게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한국적인 멋을 간직하고 있는 장승, 그 매력을 재창출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들이 이어질 때 장승은 현대식 빌딩 앞의 추상적 조형물을 재치고 우리 삶 가까이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글=김정은 사진=고영배 기자

### 장승의 신앙의미와 지역특성

#### 신석기·청동기시대 민간신앙 조형물 불교영향 금강역사등 수호신상 변화 전국에 신재...특히 호남에 많아

아 말여 먹으면 입신이 된다'는 말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이는 신앙(神信), 동신(洞神), 삼신당(三神堂), 불상, 미륵 등과 함께 복합적 민간신앙의 한 형태를 이룬 장승신앙의 단면이다.

호남지역은 장승 최대 잔존지역으로 너무 다양하여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다. 주로 나무장승보다는 돌장승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호남지역 장승은 액막이·잡귀방지·풍수비보·복남 등 그 기능도 다양해 남원 만복사지, 남원

신기리 장승처럼 힘이 넘치는 금강역사 수호신을 담은 것, 순창을 남계리 백수처럼 불교의 영향을 받아 미간에 벽호를 한 것 등이 있다. 경상남도 지역 장승들은 목장승과 돌장승이 혼재하며 그 특징으로는 어루스룩 속에 익살이 넘치고 천진함의 기교를 부린 인간적인 작품들이 많다. 나무장승이 주를 이루고 있는 충청도 지역의 장승들은 긴 통나무를 잘라 귀면·미륵·장군·문무관 상자의 얼굴을 먹으로 그려 무서움을 표시하려 했으나 오히려 충청도 사람들의 푸근한 인정이 배어있는 장승만이 제작되었다.

돌하루방으로 더 유명한 제주도와 장승은 강직하면서도 온유하며 멍청하면서도 역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허탈한 눈망울 속에는 불공의 기상이 돋보이고 있어 남대평양의 석상문화(石像文化)와 몽고족·물결족풍의 북방문화가 제주 고유의 향토색과 어울려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